

색깔의 自由

校服다시 입히는 것은 「單色文明」의 상징

성기수(KIST 시스템공학 센터소장)
경향신문 86.1.18. 『箕畚日晷』

버스의 색깔이 바뀌었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다수의견이 채택되었다 해도 소수의견은 여전히 불만인 모양이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왜 모든 버스를 한가지 색으로만 칠해야 하느냐이다. 예컨대 노선별로 색을 달리해서 버스업자에게 일임하고 업자는 그 노선 고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색깔과 디자인을 정하게 한다면 더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고, 멀리서도 노선식별이 쉬워 또한 편리할 것이다. 색깔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색깔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나지, 결코 획일적인 디자인의 단색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인에 의한 색깔의 횡포는 대단위 아파트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숫자를 통해서만 자기 집을 찾을 수 있으니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콘크리트 문명은 단색으로 인해서 비정함을 더하게 된다.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별로 색을 달리하는 것이 좋을 것도 같다. 집집마다 출입문의 색깔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색깔문화는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크게 발전했다. 국민의 소비수준을 자극할까봐 보류되었던 컬러 TV방송이 개시되었고, 흑색 일변도였던 관용차들의 색깔이 자유화되었으며 교복자유화로 중·고등학생들의 옷이 다양해졌다. 교복자유화는 특히 감격적인 것이었다.

일제치하에 비롯되었고 식민교육의 상징처럼 되어온 검은 교복을 실로 반세기만에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처럼 만에 얻은 우리 청소년들의 옷에 대한 자유가 「교복부활 여부 교장에 일임」이란 결정으로 또 다시 시련을 맞게 되었다.

교복업자들이 각 학교로 연줄대기 바쁜 가운데 현재대로 자유복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어떤 교장선생님의 말은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